

#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망대의 역할을 담당한 에베소교회 -복음으로 여는 에베소서- 출애굽기 20:3-6, 에베소서 4:11-12

정윤돈 목사님

\* **출20:3-6**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엡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237 모든 족속에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절대목표를 발견하게 하시며 나에게, 나라와 민족에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 스리랑카를 갔다. ‘마두’라는 친구를 참사랑교회에서 파송하고 마두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떠오르더라.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현재에 선교사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스리랑카에 전도신학교를 세우고 25년 동안 활동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스리랑카에 파송되어 17년 간 사역하시는 부부도 있었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다. 마두 고향도 가보고 현장도 볼 겸 갔는데 마두의 언니가 의사고, 또 치유사역하시는 분들도 만났다. 마두 언니를 통해서 개인병원을 만들고 치유망대를 세우는 그림도 그렸다. ‘전도망대, 치유망대, 선교망대’를 예사로 생각했는데 정말 현장에서 치유망대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하는 길을 보는 시간이었다. 스리랑카는 타밀어가 20%, 스리랑카어가 70%다. 이번에 130명이 모인 곳에서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80%고, 5개 국어가 절반, 6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두 명 있더라. 어느 종족이냐고 물어보니까 10가지 종족이 넘게 있었다. 우리는 계속 전도와 선교, 237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셨다. 오늘 나눌 에베소교회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에베소 지역의 센터였는데, 스리랑카 선교사님도 스리랑카 안에서 지도자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다. 에베소교회는 아주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스리랑카도 80%가 불교다. 또 에베소교회는 복음을 거부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에베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절대망대의 역할을 했다. 우리 교회와 교단도 그러한 역할을 할 줄 믿는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에베소

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에베소는 도시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큰 항구도시다. 아시아 일곱 교회를 만들고 후원한 센터가 에베소교회다. 당시 에베소에는 최대의 우상 신전이었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는 우상제작과 관련된 사업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 그러나 에베소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아야 한다. 성도들은 237 한 나라를 정하고 정말 마음에 어디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응답받으시지 질문하면서 기도해라. 성령인도 받고 응답받아야 한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과 응답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 우리 삶의 이유가 선교여야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되리라’ 하셨다. 응답되기 때문이다. 물론 목숨 걸어야 하지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 중심 속에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작은 본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드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신다.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다.

## 1.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에베소교회의 특성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에베소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말씀이다. 갈라디아교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지만 에베소서는 이방인에게 쓴 편지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는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에베소서는 주로 이방인과 다문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이다.

(2) 에베소는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였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빨리 답 내고 현장 가서 그들을 살려야 한다.

(3)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이 있어서 영적으로는 흑암과 사탄의 역사가 강했던 지역이었다.

(4)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은 두란노서원을 중심으로 가장 큰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되었다. 이 역사가 우리와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일어날 줄 믿는다.

(5) 에베소교회는 주변 지역에 골로새교회 등 수많은 지교회를 세우는 중심 교회의 역할을 하였다.

(6) 뿐만 아니라 에베소교회는 두란노서원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학교의 역할도 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모든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삼위일체론, 예정론, 그리스도론, 죄론, 구원론, 사탄론, 교회론, 선교론, 예배론, 실천신학, 기독교 윤리학 등 모든 신학적인 주제를 다 다루고 있다. 고린도전, 후서와 비교해 보면 많은 신학적인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교회가 목회자와 전도자를 훈련하는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그리고 신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 스리랑카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를 키우는 센터의 역할을 하더라.

(7) 또한 에베소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망대의 역할을 하였다. 에베소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체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지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교단과 한국교회가 받아야겠다.

(8)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93세에 죽는 날까지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바울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역한 곳이 에베소였다.

(9) 결국 에베소교회는 237나라 5천 종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절대망대로 쓰임 받았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나'다. 우리의 근심은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제자화하고 선교현장을 자립하게 할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다.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2.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중요한 본문 말씀들을 설명 드리려고 한다.**

(1)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우리를 예정하시” 말씀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 보좌의 은혜와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창세 전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신다. 1장 6절에서는 그 예정하신 목적을 말씀하신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누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2)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원리와 단계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준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부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이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 전도와 선교로 거저 줘야 한다.

(3)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다. 여기서 ‘허물(παράπτωμα)’이라는 말은 ‘무단 침입, 위반’이란 뜻으로, 즉 자범죄를 말한다. 그리고 ‘죄(ἀμαρτία)’라는 단어는 복음의 과녁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것을 의미한다. 즉 원죄문제이다. 오직 예수, 정확한 복음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죄다. 우리의 원죄문제, 구원은 복음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안 된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라 공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지만 해방받았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 사탄과 마귀 현장에 빠져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미래와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 버려라. 그게 다 응답받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성경의 인물들은 사춘기 때 최고의 믿음을 고백했다.

(3)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우리는 이 선물을 증거하는 것이다.

(4) 이제는 복음을 알았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복음으로 결론나면 영과 혼과 육이 흠과 티 없이 보전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교회에 피해를 주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갈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되고 인격과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① 먼저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다.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참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 하지만 전도운동하거나 미션홀을 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영적 성장의 절대목표를 말씀하고 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윤리, 도덕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 내 잘못을 그저 복음으로 덮으면 안 된다. 내 잘못을 알고 흠과 티 없이 가기 위해 그대로 주 앞에 아뢰라.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반면 우리가 중심을 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③ 4장 26절에서 29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주고 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 여러분에게 욕이 계속 나오는 건 그게 여러분의 영적상태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욕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하지 마라. ④ 5장 2절에서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통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비난하고 비꼬면서 말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다. ⑤ 다음으로 5장 16절에서 20절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5)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다.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처럼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감격과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이를 위해 영육 간에 영적 무장을 하라.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이 7가지 여정은 우리 교단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간 약 30년 동안 진행해 온 전도훈련의 여정을 요약한 것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에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에베소 도시와 같이 우상과 문체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237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가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알 수 있는 교회와 현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교회처럼 세계 237나라 모든 현장에 전도망대, 치유망대, 선교망대를 세우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